

문화광장



양 건
(사)제주미래건축공간연구원 이사장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는 민선 9기 새로운 도정의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움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도시건축계도 장기간 침체해 있는 도시건축 분야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주요 관심사였다.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7대 전략 과제를 보면,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수단으로서 재생 에너지와 AI 산업의 육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2035 탄소중립 섬’ 선언을 넘어서서, 제주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구조 전반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이해

제주의 도시·건축, 골든타임에 놓이다

된다. 그런데 이러한 거시적 목표에 대응하여 도민의 삶을 이루는 물리적 환경인 도시건축과의 연계 전략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다. ‘기후경제 수도’의 선언에 걸맞은 도시건축의 지향점이 아쉽다. 반면 전 도정이 내세웠던 ‘15분 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신경제 생활권’의 계획으로 축소 조정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러 도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까지 개편하며 실험을 했던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상처투성이가 된 도시를 치유하고 미래로 끌어갈 도시건축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도시건축의 기존 산업 방식으로는 경제적 활동 주체로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기후 경제에 의한 산업 구조 개편이 도시환경 구축에 조화롭게 삼투할 수 없다면 생존의 골든타임마

저 놓치게 된다. 이 절박함에 도정은 답을 해야 하며, 그 해법은 곧 제주 도시건축의 미래상이 될 것이다. 이 위기의 시간에 제주 도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론에 의하면 ‘고도지구의 전면 해제’로 인해, 도농 구분 없이 일반 상업지구인 경우 160m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고도완화의 필요성은 있다 하나, 도시의 예민한 조건들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인 고도지구 해제는 과도한 정책이다. 과연 새로운 도정도 이에 대해 동의한 입장인지 자신의 철학을 밝혀야 할 때다. 도시의 고도관리는 도시경관과 도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또한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둔 도시정책의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축계의 과제인 ‘제주건축의 정체성 정립’을 비롯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정책과 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우수 건축자산 후보로 관리해 온 ‘서귀포 관광극장’을 서귀포시가 기습적으로 철거한 사건은 건축문화에 대한 폭거였다. 그 이후에도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이루는 건축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련 부서의 행정은 표류 중이다. 무관심한 이 순간에도 제주의 건축 자산들은 생존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골든타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지금 제주의 도시건축은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 새로운 도정의 7대 전략과 도시건축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민선 9기의 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에 도시건축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사설

민생경제 상황실, 경제 활력 마중물 돼야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성곤 지사의 1호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상황실은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등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하게 된다. 위 지사가 직접 민생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을 지휘한다. 서민경제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표 흐름을 미리 읽고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컨트롤타워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이 담당한다.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이 민생경제 비상지원 상황실을 총괄한다. 생활경제 지원반, 1차 산업 위기 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은 소관 국장을 반장으로 운영된다. 위기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신용보증재단,

JDC 등 유관기관도 분야별로 참여해 대응에 나선다. 홍보·예산·세정·민원 등 4개 행정지원반은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애로 해소를 뒷받침한다.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도 확충된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장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정에 직면해 있다. 소득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면서 빚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도민들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가동은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의 내실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또 대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공무원 증원 ‘실용도정’에 맞지 않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과다한 체무를 “빛잔치”라고 비판했던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공무원 증원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 시 작되는 제453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 기존 16실·국 68과의 조직을 15실·국 70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실질재무가 2조 8579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의 방향은 각종 사업 축소와 조직 축소 밖에 없다”며 “인수 위가 지방재무를 강력 비판한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는 것은 방향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

은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기간이 4일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이며 기존 조직과 차별화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취임 후에도 ‘소통하는 도정’을 내세웠다. 지난 민선 8기의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으로 초래된 정책 실패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보완하는 게 위성곤 지사의 적절한 행보이다. 그리고 기존 업무와의 차별성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십 명을 증원하는 것은 ‘실용도정’을 표방하는 위성곤 지사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다. 의회도 심의과정에서 ‘내로남불’식 도정의 행태에 입찰을 가해야 한다. 임기 초기라고 구멍이 담 넘어가듯 넘기면 안 된다.

열린마당

여름철 불청객 모기 또 다른 불청객 ‘화재’



현 지 윤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만만히 볼 게 아니다. 바람에 날려 이불 등이 달기만 해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여름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안전 수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모기향이나 촛불은 반드시 받침대를 사용하고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치워야 한다. 둘째, 밀폐된 텐트나 캠핑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발코니 창가 주변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외출하거나 잠들기 전 모기향을 꺼서 불씨가 남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향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설마 불이 나겠어?’라는 방심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올여름은 모기향과 촛불을 켜기 전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국힘 도당 “위 지사, 똑똑하지 않아 남았나”

위 지사의 ‘말썽꾼’ 발언 비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정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집에서 말썽 피우고 이런 친구는 동네에 남아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제주도를 만들어 왔다”는 발언을 두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 국민의힘 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제주의 발전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고향을 지키는 제주 청년을 격려하기는커녕, 출지에 ‘말썽꾼’, ‘서울 못 간 안 똑똑한 사람’으로 폄하했다”고 지적. 이어 “위 지사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상처받은 제주 청년들과 도민들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 오소범기자

“주간회의부터 바꾼다”

○…교육속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교육청 내부 회의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토론 중심의 주간회의가 첫 개최. 도교육청은 이날 기존 업무보고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부서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함께성장 주간회의’를 열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실천하는 ‘그린의회’, 치료와 상담·대안교육을 연계하는 ‘학교로 가는 길’을 잇는 제주 낮병원’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 고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모든 부서에서 토론 중심 회의를 충실히 준비해 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된 ‘모두가 주인공’ 실현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제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한기림

약백도라지 연구소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